

2015 년 11 월 29 일(주일) 야고보서(6) “공홀의 법 아래 있습니까?”(약 2:1-13)

[1] 지난 주 복습 - 믿음에 관한 이슈와 차별 문제의 심각성

(1) 믿음.

1 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 “그리스도의 믿음”

믿음이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내적 도구로서 영적 선물입니다. 이 믿음의 핵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고 보여주신 믿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로 가지게 됩니다.

히 12:1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본받고 따르자는 의미.

성도의 믿음은 어떤 개성의 형태와 스타일을 가지고 있든지 예수님께서 늘 하늘의 아버지와 동행하시며 그분 뜻을 구하고 행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하나되어 드러내셨던 믿음의 핵을 받은 것이고 견지해야 합니다.

(2) 차별은 치명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야고보는 아래를 근거로 말합니다.

7 절 -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욕되게 함. (blaspheme 신성 모독)

9 절 - 구약의 최고법인 이웃 사랑에 위배되므로 구약 율법에 의해서라면 정죄 받는 일(8 절 참고)

그러면 야고보는 차별하는 죄가 구약에서 정죄와 형벌을 받는 것이니까, 이제 교회는 끝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기독교의 참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세계는 어떤 내용과 방식을 담고 있습니까?

[2] 공홀이 심판을 이긴다.

12 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 ≠ 구약 율법, 1:25 참조). 신약 교우들이 받은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을 말합니다.

간음 또는 살인을 저지르면 구약 율법에 의하여 공홀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서 차별하는 죄에 대하여 당연히 죄책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일수록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무게감을 더 크게 느끼는 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책에 대한 고백**이 드러져야 합니다

이 때, 신약 백성들은 고백을 통하여 새로운 공홀의 세계로 초대를 받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공홀(불쌍히 여기는)을 받은 자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의 공홀로 인하여 심판을 넘어서게 합니다. 벌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약 백성들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2007 년 영화 ‘밀양’ - 유괴 살인범 죄수의 신앙 고백 장면.

이 사람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습니까? 12 절을 참고.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내가 한 짓은 형벌을 받을 죄임을 분명히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초점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은 평안하고 감사한다는 말을 선불리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해한 아이와 엄마에게 더욱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벌받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 다른 태도가 없습니다. 13 절 ‘공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오히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홀 없는 심판이 닥칠 것처럼’ 말하고 행하여야 합니다.

이 정직한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씩 그를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지은 죄에 놀려서 남은 인생이 망가지고, 도피와 소외 속에 내버려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사람들에게도 한 걸음을 다가서게 하시며 “평생 사랑의 빛진 자가 되어서 사랑을 베푸는 **고귀한 삶의 소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평화를 맛 보았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먼저 함께 느끼고 자신에게도 나누어지는 과정이 따라야 합니다. 사랑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첫번째

과정을 전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자신도 묵묵히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4] 야고보는 행함 있는 믿음의 길을 소개한다.

야고보는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사랑 없는 행함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차별의 죄를 짓는 교우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그리고 예수의 긍휼을 체험하라.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사랑의 행함의 길로 초대된다. 그 행함의 길, 즉 믿음의 길을 따라 가야 한다.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길이다!”

다음 시간부터 2 장 14 절부터 26 절까지 야고보는 행함 있는 믿음을 더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야고보서에서 넘어야 할 두 정상 중 첫 번째 정상에 우리는 임박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12 절의 말씀은 똑 같이 적용됩니다. 복음의 세계가 내게 열린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은 나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만일 자기 죄의 발견과 고백이 오랫동안 침체 상태에 있었다면 묵상의 빛으로 나아가 자신의 은밀한 곳까지 비추이는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의 긍휼의 축복이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2015 년 11 월 29 일(주일) 야고보서(6) “긍휼의 법 아래 있습니까?”(약 2:1-13)

(1) 우리는 이번 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긍휼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보았습니다. 그 길은 '심판 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말씀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숙할 때 조차도 사랑의 베풀이 시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2:14 이하).

- 내가 피해를 당한 입장이라면 어떤 고백 위에 어떤 사랑의 실천이 따를 수 있을까요?
- 내가 의도적이거나 실수로 가해한 입장이라면 어떤 고백 위에 어떤 사랑의 실천이 따를 수 있을까요?

(2) 죄의 고백 위에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성품(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죄의 고백을 매우 강조합니다(요일 1:6~10 참고). 야고보서를 볼 때 죄의 고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야고보 교회가 차별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든지, 죄임을 알면서도 고백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또는 차별이 죄임을 진실로 고백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 문제는 성도가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길입니다).

- 오늘 본문을 교리적으로만 이해하고 성도의 믿음의 여정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차별을 범하면서도 뭐가 잘 못 된 것인지 잘 모르는 영적 회색 지대에 머물 수 있습니다. 혹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깊은 묵상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